Journal of Literarytherapy Vol. 54, 2020.01, pp. 385-411
http://dx.doi.org/10.20907/kslt.2020.54.385

『삼국유사(三國遺事)』 <남백월이성(南白月二聖)> 조에 나타난 '그림자 투사'의 문제 연구*

조 홍 윤**

<차례>

1. 서론
2. <남백월이성> 조에 제시된 이성(二聖)의 해탈에 관한 서사와 그 구조
3. 이성(二聖)의 깨달음에 내포된 '그림자 투사'의 문제
4. 결론

1. 서론

『삼국유사』는 고려 왕조가 무신란과 몽고 침입의 내우외환으로 존속의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 불교적 정신의 확립을 국난 극복의 동인으로 삼고자 했던 승려 일연(一然)에 의해 편찬되었다.[1] 일연의 그와 같은 의도가 과연 성공적인 결실을 얻었는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가 『삼국유사

* 이 연구는 2018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의 지원(AKS-2018-INC-2230009)으로 수행되었음.
**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의교수
(T.C İstanbul Üniversitesi Kore Dili ve Edebiyatı A.B.D. Öğr. Gör.)
1) 김문태, 『삼국유사의 시가와 서사문맥 연구』, 태학사, 1995, 21~41면 참조.

』의 편찬을 위해 수많은 고서를 두루 열람하고 세간의 전승을 조사하여 기록함으로써 고전문학 연구의 보고를 열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에 그간 『삼국유사』 소재의 시가 및 서사문학 텍스트에 대한 문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풍성한 연구 성과들을 눈앞에 두고도 아쉬움이 남는 점은, 해당 논의들을 통해 도출되는 해석들이 다분히 '불교적'이라는 것에 있다.[2] 편자인 일연의 정체성이나 그의 편찬 의도, 수록된 자료의 다수가 불교 관련 사건들과 인접해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텍스트의 의미 해석에 있어 불교 교리가 동원되는 것이 정합적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종교적 해석이라는 틀이 해당 작품의 의의가 종교의 경계를 넘어 보편 일반으로 확장되는 것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본다.

이와 같은 언술이 동아시아의 보편 종교이자 보편 철학으로 기능해온 불교에 대한 무지의 소치인가 하는 의혹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안다. 물론 불교의 가르침이 전체 인류의 참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속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타의 종교에 적을 두었거나 종교 자체에 거부감을 지닌 이들에 의해 의식적으로 배제될 위험성을 고려하면, 『삼국유사』 소재 문학 텍스트들이 함의한 보편적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탈종교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보일 의의는 충분하리라 본다.

이에 그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삼국유사』 탑상편(塔像篇)에 수록되어 있는 <남백월이성> 조의 서사가 지닌 의미를 심리적 맥락에서 구명해보고자 한다.[3] <남백월이성> 조는 관음(觀音)의 화현(化現)에 의해 깨달음을 얻

2) 이는 『삼국유사』 소재 텍스트에 관한 모든 논의가 불교적 해석에 기반을 둔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재로 향가 연구나 기이편(奇異篇) 소재의 자료 등에 대한 연구 등, 대상 텍스트에서 다루어지는 사건 자체로 불교적 교리와의 관련성이 크지 않은 사례에서는 불교적 해석의 틀을 벗어난 논의가 상당 수 존재한다.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텍스트에 기록된 사건 자체에 불교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경우, 당연한 귀결인 듯 불교의 교리가 해석의 틀로 사용되는 경향에 대한 것이다.

3) 그렇다고 하여 본고의 논의에 불교의 원리를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필요에 따라 교리적 해석을 참고하되 그것이 해석의 주된 논리 틀로 작용하지 않도

은 두 성인(聖人) 노힐부득(努肹夫得)과 달달박박(怛怛朴朴)[4]의 해탈(解脫)에 관한 이야기로서, 백월산(白月山) 남사(南史)의 창건에 얽힌 사찰연기설화(寺刹緣起說話)의 성격을 지닌다. 『삼국유사』 소재 설화 중에서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지니고 있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서사에 제시된 인물이나 화소 자체가 강한 불교적 색채를 지님으로써 불교 교리를 통한 의미 해석이 논의의 주를 이루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자면, 보살행화(菩薩行化)의 맥락에 주목하거나,[5] 서사에 내포된 미타신앙(彌陀信仰)과 미륵신앙(彌勒信仰)의 관계 구도에 대해 구명하고자 한 연구,[6] 구전설화 및 여타 선행 서사 작품과 연계한 변이양상 연구,[7] 수록된 시가의 의미에 주목한 연구,[8] 서술방식에 주목한 연구[9] 등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공히 불교적 깨달음의 과정에 입각한 의미 해석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10] 이에 <남백월이성> 조에 대

록 하며, 되도록 본문의 논의에 다루기보다는 주석을 붙이는 형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이후로는 '부득', '박박'으로 지칭한다.

5) 황패강,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66~67면.

6) 김민수, 「남백월 이성 설화 연구」, 『단산학지』 2, 전단학회, 1996, 56~93면; 박미선, 「<남백월이성> 조에 보이는 탑상의 성격과 8세기 불교 신앙의 흐름」,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6, 175~207면.

7) 김헌선, 「구비전승의 지속과 변천」, 『민속학연구』 8, 국립민속박물관, 2001, 117~152면; 김승호, 「남백월이성의 창작 저변과 서사적 의의 -『현응록』 소재 담익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509~534면; 하은하,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을 통해 본 <신립 오성 이야기>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의식」, 『국어교육』 100, 한국어교육학회, 1999, 461~486면.

8) 최귀묵, 「삼국유사 <남백월이성> 조에 나타난 일연의 문학비평-사와 게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2, 한국시가학회, 2002, 58~80면; 김문태,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조의 시가고」, 『어문연구』 40-2, 어문연구학회, 2012, 145~168면.

9) 이강옥, 「『삼국유사』의 세계관과 서술미학」, 『국문학연구』 5, 국문학회, 2001, 9~51면; 강진옥, 「『삼국유사』 <남백월이성>의 서술방식을 통해본 깨달음의 형상」, 『한국민속학』 43, 한국민속학회, 2006, 5~42면.

10) 정운채, 「<남백월 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과 문학치료」, 『문학치료연구』 2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283~307면에서는 <남백월이성> 조의 서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문학치료의 과정과 문학치료전문가의 자세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이는 불

한 논의야 말로 『삼국유사』 속 불교적 문학 텍스트에 대한 탈종교적 의미 구명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백월이성> 조에 나타난 부득과 박박의 깨달음과 해탈 과정을 심리적 맥락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범상한 인간 인식의 문제와 그 해결 과정에 대응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서사의 보편적 의의를 구명해 보고자 한다.[11] 이는 <남백월이성> 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교적 색채를 강하게 띤 『삼국유사』 소재의 여러 문학 텍스트들을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길을 가늠케 할 것이다.

2. <남백월이성> 조에 제시된 이성(二聖)의 해탈에 관한 서사와 그 구조

<남백월이성> 조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당(唐)의 황제와 연관 지은 백월산의 명칭에 대한 유래'가 제시되고, 이어서 '백월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부득과 박박의 해탈과 그로 인한 남사의 창건에 얽힌 전승'을 전한 후, '두 성인과 그들의 해탈을 도운 관음의 화신 성랑(聖娘)에 대한 찬(讚)'을 덧붙인 것이 그 개요이다. 이 중 핵심이 되는 것은

교적 해석의 틀을 크게 벗어난 논의라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문학치료의 과정과 문학치료전문가의 형상'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적용된 것으로서 <남백월이성>에 대한 보편적 시각의 해석이 될 수는 없을 듯하다.

11) 이는 <남백월이성> 조의 서사를 활용한 심리학 연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심리적 맥락을 활용한 많은 문학 연구에서 전체 서사를 심리적 메커니즘에 따라 구조화하여 고유의 서사가 지닌 맥락을 무화시키는 환원론적 연구에 귀결되는 경향이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남백월이성> 조의 서사 구조를 문학적 맥락에서 도출하여 그 고유의 서사가 지닌 맥락을 먼저 확인하고, 여기에 주인공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심리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심리학 개념을 활용하여 그들 내면의 변화 양상을 조명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문학을 활용한 심리학 연구가 아닌 심리학 개념을 활용한 문학 연구라는 본고의 지향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성의 해탈에 관한 두 번째 부분이며, 앞서 제시된 백월산의 유래담은 이어지는 두 성인에 대한 이야기에 공간적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라 이해될 수 있다.[12] 또한 덧붙은 일연의 평가와 찬은 중생의 해탈을 도운 성낭의 보살행과 두 성인의 깨달음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서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로 배치된 이성의 해탈에 관한 서사에 초점을 두고 그 깨달음과 해탈의 과정에 대응하는 인간 인식의 심리적 맥락을 들여다보도록 한다.

해당 부분에 제시된 서사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옛날 백월산 동남쪽 선천촌(仙川村)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라는 준수한 두 인사가 살았는데, 친구인 둘은 속세를 떠나고자 하여 20세에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이후 승도촌(僧道村)의 옛절이 수양하기에 좋다는 말을 듣고 옮겨가서는 처자를 부양하며 산업을 경영하는 한편으로 서로 왕래하며 수행을 이어가다가 결국 완전히 인간 세상을 떠나 은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2) 어느 날 두 사람은 동시에 서쪽에서 온 빛 속에서 금빛 팔이 내려와 이마를 쓰다듬는 꿈을 꾼 후 드디어 백월산 무등곡(無等谷)으로 들어가 각기 다른

12) 해당 부분에 제시된 바, 당나라 황제의 연못에 백월산의 사자암이 비쳤기에 이를 신이한 일로 여긴 황제가 이름을 붙였다는 서술은 당대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인 당의 최고 권위자와 백월산 신이한 존재성을 대응시킴으로써 이후에 이어지는 이성의 이야기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강진옥은 "백월산의 지명 유래가 보여주는 이러한 신이성은... 빼어난 산세를 표상하는 백월산의 외적 형상에 대한 서술에서 유추되는 예사롭지 않은 기상과 부합되면서 수용자들에게 신성공간으로서의 백월산의 면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일조한다. 그리하여 바로 이어지는 백월산에서 일어난 신성한 사건, 두 수행자의 성불과 승천을 다룬 <남백월이성>은 이같은 기록들을 토대로 제시됨으로써 구체적인 현실성과 객관성을 담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배경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강진옥, 「『삼국유사』 <남백월이성>의 서술방식을 통해본 깨달음의 형상」, 『한국민속학』 43, 한국민속학회, 2006, 13면.)

13) 물론 이 부분에도 앞선 이성의 해탈에 관한 서사를 이해함에 있어 준거가 될 만한 일연의 서술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할 것이지만 간명한 논의를 위해 그에 대한 논의를 전면에 드러내지는 않고자 한다.

방향[14]에 자리 잡고, 박박은 미타불(彌陀佛)을 부득은 미륵불(彌勒佛)을 염송하며 수행을 시작했다.

(3) 3년이 지난 어느 날 날이 저물어갈 때 나이 스물 가량 된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와 유숙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박박은 절은 깨끗해야 하니 여인을 머물게 둘 수 없다며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고, 부득은 망설였으나 곧 중생(衆生)을 위하는 뜻으로 여인을 받아들였다.

(4) 여인을 받아들인 부득이 마음을 다스리며 밤샐 무렵까지 염불을 하고 있으려니, 여인은 출산 기미가 있다며 짚자리를 마련해달라 청해 해산을 하고는 이내 목욕 수발을 청하였다. 여인을 불쌍히 여긴 부득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여인의 청을 들어주자 목욕물에서 향이 나더니 금빛으로 변하였다.

(5) 여인은 부득 또한 그 물에 목욕하도록 권하였고 부득이 그 말에 따르니 홀연 성불하여 연대에 앉게 되었다. 여인은 스스로 관음보살(觀音菩薩)의 현신임을 밝히며 부득을 도와 대보리(大菩提)를 이루도록 한 것이라 말하고는 이내 사라졌다.

(6) 부득이 계를 범하였을 것이라 여겨 찾아간 박박은 연대에 오른 부득의 모습을 보고 그 경위를 전해 듣게 되었다. 이내 자신의 마음에 가린 것이 있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을 알게 된 박박은 부득에게 자신을 이끌어주길 간청하고, 부득은 남아 있는 금액(金液)에 박박 또한 목욕하도록 하여 성불을 도왔다.

(7)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이를 전해 듣고 사자를 보내 백월산 남사를 세웠다. 이 절의 금당(金堂)에는 미륵존상(彌勒尊像)을 강당(講堂)에는 아미타불상(阿彌陀佛像)을 모셨는데, 금액(金液)이 모자라 온몸에 바르지 못한 아미타불상에는 얼룩진 흔적이 있다.

---

14) 본문을 따르면 향전(鄕傳)에서 전하는 방향과 일연의 서술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저 거리가 떨어진 다른 방향에 자리 잡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리라 본다.

위에 정리된 서사 단락은 후일담 격인 단락 (7)을 제외한 (1)~(6)까지 서사 국면의 전환을 고려하여 이성의 해탈에 관한 전체 서사를 간략하게 재정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단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와 같은 서사적 전환이 보여주는 맥락은 무엇인지 따져 전체 서사를 구조화하는 것이 정합적 분석에 이로우리라 본다.

먼저 단락 (1)~(2)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득과 박박은 열반(涅槃)을 지향하면서 자신들의 수행에 보다 이롭게 여겨지는 공간으로의 이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이동 과정은 진리를 향한 둘의 열망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탐색의 과정을 보여준다.[15] 둘은 처자를 거느리고 나름의 산업을 경영하면서 속세의 삶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수양에 힘쓰며 깨달음을 얻고자 했으나 속세에 대한 회의와 열반에 대한 열망은 날로 커져갔고, 그 결과 부득과 박박이 도달한 결론은 결국 속세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서 깊은 산중에 숨어 홀로 수행에 정진해야만 도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 "기름진 밭과 풍년은 참으로 좋으나, 옷과 음식이 마음대로 생겨 자연히 배부름과 따뜻함을 얻음만 못하다. 또 부녀자와 집은 참으로 좋지만, 연지화장(蓮池華藏)에서 부처들이 앵무 공작과 함께 놀며 서로 즐김만 못하다. 더구나 불도를 배우면 응당 부처가 되고, 참된 것을 닦으면 반드시 참된 것을 얻을 수 있음에야. 우리들은 이미 머리를 깎고서 중이 되었으니 마땅히 몸에 얽매인 것을 벗고 무상의 도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어찌 풍진 속에 묻혀 세속의 무리와 지낼 수 있겠는가." 그들은 드디어 인간 세상을 떠나서 장차 깊은 골짜기에 숨고자 했다.[16]

그처럼 인간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어느 날 부득과 박박은 하나의 꿈

15) 강진옥, 「『삼국유사』 <남백월이성>의 서술방식을 통해본 깨달음의 형상」, 『한국민속학』 43, 한국민속학회, 2006, 18면.

16) 腴田美歲良利也 不如衣食之應念而至 自然得飽煖也 婦女屋宅情好也 不如蓮池華藏千聖共遊 鸚鵡孔雀 以相娛也 鎭學佛當成佛 修眞必得眞 今我等旣落彩爲僧 當脫略纏結成無上道 豈宜汨沒風塵 與俗輩無異也 遂唾謝人間世 將隱於深谷(『三國遺事』 券 第三, 塔像 第四, 南白月二聖 努肹夫得 怛怛朴朴)

을 동시에 꾼 후에 성불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 어느 밤 꿈에 백호(白毫)의 빛이 서쪽으로부터 스스로 이르더니 그 빛 속에서 금빛 팔이 드리워 두 사람의 정수리를 쓰다듬어 주었다.17)

위의 꿈에 언급된 백호(白毫)란 부처의 모습을 나타내는 십이 상(十二相) 중 하나로서 부처의 눈썹 사이에 있는 희고 빛이 나는 털을 말한다. 곧 정토(淨土)의 방향인 서쪽으로부터 온 '백호의 빛'이란 부처의 존재를 나타내며, 그로부터 팔이 드리워져 두 사람의 정수리를 만져주었다는 것은 석가가 다음생에 부처가 될 제자들에게 예시를 내리며 정수리를 어루만졌다는 마정수기(摩頂授記)를 암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꿈은 부득과 박박이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 해탈하게 되리라는 예시이며, 그와 같은 가능성을 확인한 그들이 곧바로 수행을 위해 모든 인연을 끊고 백월산 무등곡에 각기 자리 잡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은 단락 (1)~(2)의 내용을 통해 그 서사의 전환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자면, 해당 부분의 서사 주체는 부득과 박박으로 공통되며, 그 내용은 '현실에 대한 회의와 이상의 추구'에서 '이상의 성취 가능성 확인으로 인한 현실 이탈'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순차구조로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A′. 부득·박박: 결핍 –현실에 대한 회의와 이상의 추구
B·B′. 부득·박박: 해법 발견 –이상의 성취 가능성 확인으로 인한 현실 이탈

그런데 모든 인연을 끊고 수행에 정진하면 금방이라도 이룰 수 있을 것 같던 두 사람의 성불은 3년의 시간 동안 지연된다. 이에 대하여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3년이라는 구비관습적 시간이 제시된 것에 대해 정도 이상의 수행 정진이 있었음을 말하기 위한

17) 夜夢白毫光自西而至 光中垂金色臂 摩二人頂(『三國遺事』 券 第三, 塔像 第四, 南白月二聖 努肹夫得 怛怛朴朴)

이야기 전통의 일환으로 보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에 대한 왕래마저 끊은 채로 각자의 처소에서 수도에 전념했던 두 인물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방식의 도를 추구하였음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3년이라는 축약된 시간의 경과가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8] 그러나 애초에 두 사람이 산속에 은거하고자 한 이유가 모든 인연을 끊고 수행 정진하는 것이야말로 득도의 길이라 여겼기 때문임을 상기하면, 결과적으로 낯선 여인과의 인연 맺음을 통해 도를 이루게 되는 것은 그들이 선택한 '인연 끊기'의 방법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여인과 조우하여 다시금 세상과 인연을 맺기 전까지 그들의 존재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3년의 시간을 '지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한 둘에게 여인이 찾아온다. 해 저문 산 속 암자에 난초와 사향의 향기를 풍기며 다가온 아름다운 여인의 이미지는 부득과 박박이 헛되이 여겨버리고 온 현실 그 자체를 형상화 한다. 그러한 여인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두 사람의 서사는 각각의 길로 나뉜다. 박박은 인간 세상의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여인과의 인연 맺기를 단칼에 거부함으로써 기존에 걸어온 길을 고수한다면, 부득은 망설임 끝에 여인과의 인연 맺기를 받아들인다.

어쩌면 부득은 득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연히 나타난 여인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의 가능성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난데없는 여인의 도래를 의아히 여긴 부득이 밤중에 어디서 오는 길인지 물었을 때 여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던 것이다.

> "(나의) 맑음이 태허(太虛)와 다르지 않은데 어찌 오고감이 있겠습니까. 다만 어진 선비의 품은 뜻이 깊고 무거우며 덕행이 높고 굳음을 들어 장차 보리(菩提)를 이루시도록 돕고자 합니다."[19]

---

18) 강진옥, 「『삼국유사』 <남백월이성>의 서술방식을 통해본 깨달음의 형상」, 『한국민속학』 43, 한국민속학회, 2006, 16면.

19) 湛然與太虛同體 何有往來 但聞賢士志願深重 德行高堅 將欲助成菩提(『三國遺事』 券

여인이 직접 부득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은 사실 이야기의 흐름상 어색한 점이 있다. 우선 여인이 부득에게만 유독 자신의 존재성을 암시하여 받아들이도록 하였다는 점이 같은 상황에 대한 두 주인공의 다른 반응을 견줌으로써 서사적 의미가 응결되는 이야기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다. 완전히 가려져있던 여인의 정체가 마지막에 가서야 밝혀지는 것이 서사 미학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임은 물론이다. 또한 부득은 스스로 그를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 자신하는 여인의 말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그저 구제의 일환으로써 그녀를 맞이한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러한 말이 실제로 발화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막막한 수행의 길을 홀로 걷던 부득이 자신을 찾아온 여인을 마주하였을 때 그녀와의 인연을 통해 막혀 있던 깨달음의 길을 열게 될 가능성을 감지하였음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편자에 의해 향전(鄕傳)으로 지칭되는 본래의 전승에서는 그저 부득이 어떠한 예감을 얻어 여인을 맞은 정도로 표현되었던 것이, 기록 과정에서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의미부여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20]

그렇다면 서사 단락 (3)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여기서부터는 여인의 출현에 따른 부득과 박박의 대응이 결을 달리하면서 서사의 주체가 나누어지게 된다. 박박의 경우에는 여인과의 관계 맺음을 차단하고 기존의 수행방식을

第三, 塔像 第四, 南白月二聖 努肹夫得 怛怛朴朴)

20) 계율을 중시하는 승려의 입장이었던 일연에게는 계율대로 여인을 멀리한 박박의 처신 또한 흠잡을 데 없는 것으로 여겨졌을지 모른다. 그와 같은 일연의 시각은 박박에 대한 찬에도 드러나는데, 여기서 일연은 여색을 경계하면서 계율에 충실하고자 하는 박박의 자세를 높이 표현한다.(최귀묵, 「삼국유사 <남백월이성> 조에 나타난 일연의 문학비평-사와 게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2, 한국시가학회, 2002, 73면.) 찬의 기능을 논평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인물 행적, 작품 등에 대한 '기림'의 역할이라 본다면, 박박에 대한 찬에서 계율에 충실하고자 한 박박의 모습 또한 일연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여인이 부득에게만 자신의 존재를 암시하였다는 내용이 첨가됨으로써 계율을 중시하였던 박박도, 중생 구제에 더 중점을 두었던 부득도 모두 긍정할 수 있는 방향의 서술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지속함으로써 그저 '이상 성취의 지연' 단계에 머무르게 되고, 박박은 여인과의 관계 맺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앞서 말했듯 두 사람의 득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인연 끊기'에 연유하였다 본다면, 부득이 다시 여인과 관계 맺게 된 것은 그가 득도에 방해 된다 여겨버리고 떠나온 현실의 인연, 그의 이상에 대비되었던 현실을 되돌아보는 과정으로 나아간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C. 부득: 해법 재고 –이상 성취의 지연과 현실에 대한 재고
C'. 박박: 해법 유지 –이상 성취의 지연

단락 (4)를 통해서는 부득이 여인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여인을 들여 놓고 마음을 흩뜨리지 않으려 노력하는 부득을 여인은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 산파 노릇을 맡기고 자신의 몸을 씻기도록 하는 등, 승려에게는 난감한 요구들로 부득을 번민케 하는 것이다.

"내게 불행히도 출산 기미가 있으니, 원컨대 스님께서는 짚자리를 좀 준비해주십시오." 부득은 불쌍히 여겨 거절하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서 은근하게 대했다. 출산을 마치자 또 목욕하기를 청했다. 부득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얽혔으나, 가엾은 심정이 더욱 커져서, 또 목욕통을 준비해 낭자를 그 안에 앉히고 물을 끓여 목욕시켜주었다.[21]

계율을 중시하는 불도의 수행자에게 있어서 여인의 출산 장면을 본다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은 곤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적나라한 여인의 몸을 보게 되고 그 몸을 만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부득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마음에 얽혀' 괴로웠으나, 오로지 여인을 가엽게 여겨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21) 娘呼曰 予不幸適有産憂 乞和尙排備燄草 夫得悲矜莫逆 燭火殷勤 娘旣産 又請浴 努叅璃瞿交心 然哀憫之情有加無已 又備盆槽 坐娘於中 薪湯以浴之(『三國遺事』 券 第三, 塔像 第四, 南白月二聖 努肹夫得 怛怛朴朴)

으로 그녀의 요청에 응했다. 이때 부득이 마주한 여인은 정념의 대상, 세속적인 욕망의 대상이라는 존재성을 지닌 동시에, 산속을 해매는 약자, 출산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약자로서 구제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성을 지닌다. 욕망의 대상인 여인은 부득으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몸부림치도록 하지만, 약자로서의 여인은 그가 구제해야 할 중생일 뿐이다. 그처럼 여인에게 겹쳐진 이중의 이미지를 눈앞에 두고서, 부득은 욕망의 대상인 여인이 아니라 구제의 대상인 여인을 직시함으로써 그 요청에 응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여인을 씻긴 물을 향기로운 금액으로 변케 한 이적이었다. 다름 아니라 여인을 가여운 중생으로 직시하고 구제하고자 한 부득의 행위가 그야말로 향기로운 정금의 가치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부득이 그 향기와 금빛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지닌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여인을 암자 안에 들여 출산을 돕고 그 몸을 씻긴 행위, 그것은 여인을 욕망의 대상이 아닌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부득은 깨닫게 되었다. 현실의 욕망이 수행을 가로막는 장애라 여겨 현실의 모든 인연을 끊고 산 속에서 홀로 수행하였으나, 실상 해탈의 길은 버려두고 온 현실 속에 있었던 것이다. 해탈을 통해 부처가 된다는 것은 현실의 고통 속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는 신성한 존재로의 변화를 의미한다.[22] 특히 부득과 박박이 해탈을 위해 궁구하였던 가르침이 미륵불과 미타불의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이 얻어야 할 깨달음은 중생의 구제를 위한 것이어야만 했다.[23] 그렇다면 현실 속에 놓여있는 뭇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는 것이야 말로 그들의 보살행에 중심이 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부득과 박박은 현실 속의 관계 대상들을 속된 정념을 일으키는 장애로만 여겼을 뿐, 그들

22) 불교적 수행이 항상 중생의 구제에 그 뜻을 둔 것은 아닐지라도,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주가 된 한국 전통의 불교사상 위에서는 이와 같은 언술이 가능할 것이다.

23) 미륵불은 도솔천(兜率天)에서 천인(天人)들에게 설법하다가 먼 미래에 하생(下生)하여 모든 중생을 교화하리라 전해지며, 미타불은 중생의 극락왕생을 주관한다고 전해진다. 결국 두 부처 모두 '중생의 구제'에 존재의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박미선, 「<남백월이성> 조에 보이는 탑상의 성격과 8세기 불교 신앙의 흐름」,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6, 193~194면 참조.)

이 바로 자신들이 구제해야 할 중생임을 깨닫지 못했다. 산 속에서 홀로 수행 정진한 두 사람의 해탈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그와 같은 중대한 오류에 의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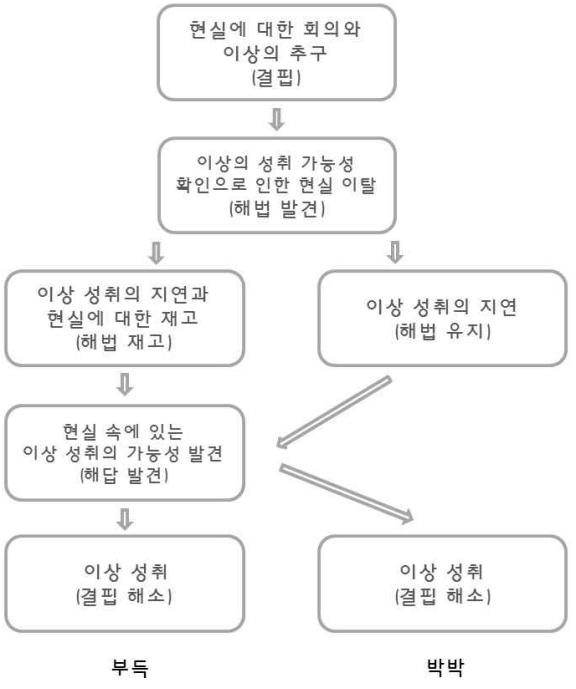
그러나 부득은 욕망의 대상이자 구제의 대상일 수 있었던 여인과 직면하여 구제의 대상인 그녀의 모습을 직시함으로써 그가 버리고 온 현실 속에 해탈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처럼 (4)단락을 통하여 향기로운 금빛의 깨달음을 얻은 부득은 (5)단락에 이르러 그것을 자신의 몸에 끼얹음으로써 마침내 그 깨달음을 자신의 존재에 덧입힌다. 이로써 부득은 성불하여 자신이 염원하던 이상을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D. 부득: 해답 발견 –현실 속에 있는 이상 성취의 가능성 발견
E. 부득: 결핍 해소 –이상 성취

부득이 얻은 깨달음은 (6)단락을 통해 박박에게 전해짐으로써 박박의 해탈을 돕는다. 박박은 여인과의 관계를 거부함으로써 완고하게 현실과의 분리를 택하여 직접적인 깨달음의 과정을 경유하지는 못하였으나, 부득의 해탈을 목도하고 부득이 경유한 서사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그가 지니고 있었던 인식상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부득이 목욕하고 남은 금액에 자신 또한 몸을 담금으로써 해탈하게 되는 박박의 모습은, 부득의 깨달음을 그대로 자신의 깨달음으로 수용하는 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D′. 박박: D의 간접 경유)
E′. 박박: 결핍 해소 –이상 성취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정리된 바, 부득과 박박의 해탈에 관한 <남백월이성> 조의 서사 구조를 간단히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3. 이성(二聖)의 깨달음에 내포된 '그림자 투사'의 문제

앞장의 논의를 통하여 <남백월이성>에 나타난 부득과 박박의 해탈에 대한 서사를 상세히 살피고 그 서사 구조를 확인하였다. 간략히 정리하면, 현실의 삶에 회의를 느낀 부득과 박박이 '해탈'이라는 이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현실을 떠나 이상적 공간인 백월산에서의 수행을 선택하지만, 그들이 떠나온 현실을 표상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구제해야 할 중생의 모습을 발견하고 각성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때 부득은 여인의 모습을 통해, 박박은 부득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인식적 오류를 깨닫게 됨으로써 해탈을 이루게 된다.

그 깨달음의 핵심은 '바로 보기'에 있다. 세속적 욕망의 대상인 동시에 구

제의 대상으로서 이중적 이미지를 지닌 여인을 어떠한 시각으로 포착하는가에 따라서, 여인은 계율을 범케 하는 죄악의 화신이 되기도 하고, 부득과 박박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관음의 화신이 되기도 한다.[24] 이는 곧 부득과 박박이 떠나온 현실 또한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 세속적 정념으로 가득한 공간이 될 수도, 중생 구제를 위한 보살행의 도량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한다. 즉 두 성인의 해탈이 지연되도록 한 인식의 오류란, 그들이 추구해야 할 보살행의 공간인 현실을 오직 수행을 방해하는 정념의 공간으로만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식적 오류를 빚어낸 심리적 맥락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는 박박이 보이는 모습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여인의 요청을 거절한 박박의 심리에 대하여 '스스로의 욕망과 번뇌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였기에 계율에 의지하였던 것'이라 지적된 바 있다.[25] 그렇다면 스스로의 불안을 외부의 대상에 전가하는 심리 작용, '그림자 투사(Shadow Projection)'의 문제로 두 성인의 인식적 오류 문제를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융 심리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그림자(shadow)'는, 심리 주체가 자신으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면모들, 의식과 양립할 수 없는 열등한

---

24)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강진옥은 부득을 해탈에 이르게 한 것이 일체의 분별망상을 여읜 공관(空觀)의 시각에 있음을 논한바 있고,(강진옥, 「『삼국유사』 <남백월이성>의 서술방식을 통해본 깨달음의 형상」, 『한국민속학』 43, 한국민속학회, 2006, 24~32면 참조.) 황윤정 또한 여인을 속된 대상으로만 인식하였던 박박과 성(聖)·속(俗)의 분별없이 여인을 구제의 대상으로 보았던 부득의 시각에 의해 해탈의 성패가 나뉘었음을 논한바 있다.(황윤정, 「가치 문제의 서사적 형상화 방식 연구」, 『문화와 융합』 40-6,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482~486면 참조.)

25) 강진옥은 "이는 그가 여인으로 인해 환기되는 욕망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고,(강진옥, 「『삼국유사』 <남백월이성>의 서술방식을 통해본 깨달음의 형상」, 『한국민속학』 43, 한국민속학회, 2006, 34면.) 황윤정은 "박박이 자기 내부의 욕망이나 번뇌를 스스로 완전히 제어하고 있지 못했기에 계율에 의지하여 외부적인 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중생 제도를 구하는 수행자의 신분이면서 중생을 내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라고 언급한바 있다.(황윤정, 「가치 문제의 서사적 형상화 방식 연구」, 『문화와 융합』 40-6,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484면.)

특성들이 의인화하여 무의식 상에 드리워진 것이다.[26] 이는 자아의 이상(ego ideal)이 추구하는 자기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자신의 이미지들을 의식으로부터 밀어냄으로써 생성되는데, 주체가 사회의 기대를 반영하여 페르소나(persona)를 형성함에 따라 그 내면에 존재하는 미숙한 요소들을 그림자로 주조하게 된다.[27] 그러나 인식되지 못할 뿐 그림자 또한 본래적 자기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무의식적으로 주체에 관여하며, 주체에 의해 의식적으로 거부당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강한 힘을 응축하게 된다. 이에 의식과 그림자의 괴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림자는 반사회적 공상을 유발하거나 갑작스러운 이상행동을 유도하고 신경증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인격적 성숙과 심리적 건강성을 위하여 주체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의식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28]

이와 같은 그림자는 주변으로 투사됨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투사(projection)'란 주체의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주체 밖의 다른 대상들에 덧 씌워 인식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의식의 억압에 의해 형성되는 그림자 또한 의식을 통해 인식되지 못하면서 밖으로 투사되는 속성을 지니는데, 심리 주체가 목격하는 타자의 부정적 면모들, 눈에 거슬리고, 비판을 가하도록 하고, 비웃음 짓도록 만드는 일체의 이미지들은 실상 심리 주체의 무의식을 구성하는 불안정한 자기상을 타자에 투사시켜 놓은 것들이다.[29] 이에 주체는 타자의 부정적인 모습을 자신의 그림자가 투사된 이미지로 인식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타자의 모습을 '자신이 아닌 것'으로 보기를 고집한다면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괴리는 심화되고 인식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

---

26) C. G.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1991), 173-74.

27) John A. Sanford, *Evil: The Shadow Side of Reality*(New York: Crossroad, 1981), 49.

28) Eric Neumann, *Depth Psychology and a New Ethic*(Boston: Shambhala, 1991), 38-40.

29) Erna Van De Winckel, *De l'inconscient à Dieu : ascèse chrétienne et psychologie de C.G. Jung*(Paris : Aubier, 1959), 71.

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림자 투사의 맥락을 부득과 박박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들은 가족을 거느리고 산업을 경영하면서도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꿈꾸며 수행에 힘썼으나, 속세의 현실적 삶을 통해서는 수행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생업에의 종사, 이 모든 조건들이 그들을 속세의 욕망에 가두어 놓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놓인 현실은 그들을 정념에 휩싸이게 하는 속된 공간으로만 인식되었다. 이에 부득과 박박은 현실의 모든 관계와 생업을 끊어내고 이상적 수행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백월산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수행의 성패가 자신이 아닌 외부의 조건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다. 이에 수행에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상적 조건을 찾아 이동을 거듭하다 결국 일체의 현실적 관계를 거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수행을 가로막았던 정념들은 현실 속의 관계 대상이 아닌 자신의 그림자에 의한 것이었다.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보다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스스로의 그림자가 배우자의 모습에,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의 모습에 투사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부득과 박박은 그것이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투사 가능한 대상 자체를 배제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신적 각성을 통한 해탈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자기 내면에 잠재된 완전한 인격의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득과 박박에게도 스스로의 내면적 완전성을 위한 그림자의 통합이 과제로 주어져 있었다 하겠다. 그러함에도 타자에 투사된 자신의 그림자를 정념을 자극하는 외부적 조건으로 인식하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정념의 이미지들을 보지 않기 위해 투사 대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참된 길일 수 없었다. 백월산에서의 수행을 통해 3년의 시간이 지연되었던 것도 이에 연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부득은 여인을 대면함으로써 스스로가 타자에게 투사하여 왔던 자

신의 그림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 사향 냄새를 풍기는 스무 살 여인의 모습은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고혹적인 형상이나, 그것은 육적인 욕망에 자유롭지 못한 스스로의 그림자가 덧입혀진 것이다. 여인은 그저 산 속을 헤매는 약자일 뿐이며, 그가 구제하고자 다짐하였던 가엾은 중생 그 자체이다. 이때 부득이 여인을 욕망의 대상이자 구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도 그의 수행이 박박에 비해 진척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박박에게 여인은 완전한 욕망의 대상일 뿐이었으니, 암자에 들인다면 분명코 그 욕망을 이길 수 없으리라 여겼기에 단호히 유숙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부득은 여인이 자신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구제의 대상인 그녀의 이미지에 집중함으로써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부득에게도 여인과 함께 하는 시간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이었다. 암자에 여인을 들인 이후에도 그녀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를 쓰며 조용히 경문을 암송하는 부득의 모습에서 그의 내면적 불안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인은 부득이 자신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출산을 돕게 하여 그녀의 적나라한 모습을 목격하도록 하고, 목욕 수발을 요청하여 자신의 나신을 만지도록 만든다. 자신에게 투사된 부득의 그림자를 더욱 확실하게 보도록, 나아가 그것을 직접 만져서 그 전모를 확인하도록 만드는 것이다.[30]

이에 부득은 확인한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성(性)의 상징'은 새 생명을 세상에 내어 놓는 '생(生)'의 상징이었다. 온갖 지저분한 출산의 부산물 속에 가로 놓인 것은 때 묻지 않은 순수의 생명이었다. 부득은 자신의 청명이

30) 유사한 맥락으로 정운채는 "여인은 면벽을 하고 염불에 전념하고 있는 노힐부득의 소극적 태도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문제 상황을 외면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 태도로는 수행을 진척시킬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인은 여인을 쳐다보지 않으려는 노힐부득의 소극적인 자세를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게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어 놓는다."라고 논한 바 있다.(정운채, 「<남백월 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과 문학치료」, 『문학치료연구』 2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286면.)

더럽혀질까 두려운 마음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분명히 목격할 수밖에 없었고, 여인의 심벌을 '성적인 것'으로 보게 하는 것도, 출산의 현장을 '지저분한 것'으로 보게 하는 것도 오직 자신의 그림자임을 깨닫는다. 여인의 나신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계를 범하는 것이라 여겨 두려움에 떨었으나, 자신의 손에 닿은 여인의 나신이 그저 출산에 지쳐 운신할 수 없는 숭고한 어머니의 몸임을 확인한다. 성적인 것으로만 인식했던 여인의 나신을 만지는 행위도 온전한 구제의 행위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성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도 자신의 그림자임을 깨닫는다. 이렇게 부득은 여인의 출산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여 의식에 통합하는 데 이른 것이다.

이제 부득에게는 해탈의 장애로만 여겨졌던 현실 속의 관계들도 다르게 인식된다. 그 관계들을 장애로 여기도록 한 것도 자신의 그림자이며, 스스로 그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중생 구제의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깨닫는다. 이와 같이 그림자의 통합을 통한 내면 인식의 완성이 그를 해탈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다.

박박의 경우는 의식과 그림자의 괴리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31] <남백월이성> 조의 본문에서는 박박이 유숙을 청하는 여인을 향하여 "절은 깨끗해야 하는 곳이니 여인이 올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지만, 일연의 할주를 통해서는 "육색(肉色)으로써 시험치 말라."고 했다는 기록도 전한다.[32] 여인을 온전한 육욕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 인식의 왜곡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을 찾아가는 도중에 박박은 다음과 같이 뇌까린다. "부득이 오늘밤 분명히 계를 범하였을 것이니 비웃어 주리라."[33] 박박의 인

31) 부득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갈등의 과정을 거쳐 통합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준다면, 박박의 경우는 그림자 투사의 문제 자체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32) 강진옥, 「『삼국유사』 <남백월이성>의 서술방식을 통해본 깨달음의 형상」, 『한국민속학』 43, 한국민속학회, 2006, 25면.

33) 朴朴謂繇今夜必染戒 將歸渾之(『三國遺事』 券 第三, 塔像 第四, 南白月二聖 努肹夫得 怛怛朴朴)

식 상에서 여인을 암자로 들인다는 것은 '반드시 계를 범하게 될 일'이다. 이에 부득이 분명 계를 범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를 비웃을 생각으로 가득하여 부득의 암자로 찾아간 것이다. 실상 여인을 암자에 들인 부득이 색계를 범하였을지는 결코 박박이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박박은 오직 자신의 기준에 따라 부득이 여인을 범하였으리라 확신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여인에 대한 성욕을 억누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판단의 작용이다. 그야말로 자신의 의식상에 거부된 심리 주체의 약점을 타자에게 덧씌우는 그림자 투사의 전형이다.

그러나 해탈에 성공하여 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부득을 목격하는 순간 박박은 자신의 왜곡된 인식에 대해 깨닫게 된다. 부득이 득도하게 된 전모를 전해들은 박박이 스스로 "나는 마음속에 가린 것이 있었다."[34]라고 토로하는 것도 그가 스스로 자신의 인식적 왜곡을 인지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반드시 계를 범하였을 것이라 생각했던 부득이 오히려 수행을 완성한 모습을 목격한 충격이 박박이 지닌 인식의 한계를 깨뜨림으로써 부득이 겪은 그림자 투사의 인식 과정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 이에 박박 또한 자신이 떠나온 현실 속의 관계 대상들에게, 여인에게, 부득에게 투사되었던 자신의 그림자를 분명히 인식하고 의식의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남백월이성> 조에 나타난 두 성인의 형상이 암시하는 보편적 인간 현실의 문제를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이 지닌 존재적 한계란 명백하다. 이에 누구나 현재의 자신보다 완성된 존재상을 희구하기 마련이고, 보다 나은 존재상과 보다 나은 삶을 획득하기 위한 길을 찾아 헤매게 된다. 그러나 이상적 존재상과 이상적 삶을 획득하는 것은 인생의 끝까지 충족되지 않을 목표이며, 이에 갈증을 느끼게 되는 인간은 해결되지 않는 갈증의 원인을 자신의 주변에서 찾기 마련이다. 그렇게 자신의 이상과 배치되는 자신의 존재상을 주변의 타자에 투사하여 전가할수록, 그가 놓인

34) 朴朴嘆曰 我乃障重 幸逢大聖 而反不遇(『三國遺事』 券 第三, 塔像 第四, 南白月二聖 努肹夫得 怛怛朴朴)

세계는 부정적 이미지들로 가득하게 되고 더 큰 갈등과 고통을 낳게 될 뿐이다. 언젠가는 갈등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부득과 박박이 그러했듯,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현실을 등지고 싶어질지 모른다. 이와 같이 그림자의 투사로 인해 야기되는 인간 삶의 문제에 대하여 <남백월이성> 조는 두 성인의 형상을 통해 해결의 길을 제시한다. 주변에 투사되고 있는 자신의 그림자를 분명히 인식하고 통합해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남백월이성> 조에 제시된 두 성인의 해탈 과정에 대하여 그 서사적 함의를 심리적 맥락에서 구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사찰연기설화로서 다분히 불교적 색채를 띤 해당 서사에 대하여 보다 보편적 차원의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 의도이다. 그에 따라 두 성인의 수행에 장애로 작용하였던 인식적 왜곡의 양상을 융 심리학 개념인 '그림자 투사'의 맥락으로 짚어 보았다. 확인된 바, 두 성인이 현실의 생활공간을 떠나 백월산에 은거하게 되었던 맥락도 주변의 타자에게 자기 내면의 미성숙한 모습들이 투사되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였으며, 갑자기 찾아온 여인과의 조우를 거부하거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도 모두 성적인 욕망에 자유롭지 못한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여인에게 덧씌운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노힐부득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여인의 실체를 직시하고 손으로 만져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자기 안의 그림자를 온전히 인식하여 통합할 수 있었고, 이차적으로는 달달박박 또한 노힐부득의 성공을 목격하고 그 전모를 전해 들음으로써 마찬가지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림자의 통합을 통한 인격적 성숙의 중요성, 두 성인의 서사가 평범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스스로 수준 높은 인격을 자아의 이상으로 삼을수록, 그러한 이상에 어울

리지 않는 주변인들의 모습이 못마땅한 경우가 많다. 도덕적이지 못하다거나 지나치게 세속적이라거나, 이기적이고 유혹에 약한 그 모습들이 눈에 거슬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과연 그들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혹여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우리 내면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투사되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 수준 높은 인격이란 더러움이 없는 인격이 아니라, 스스로의 더러움을 아는 인격이라고 <남백월이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기본 자료

一然 著, 『三國遺事』 券 第三, 塔像 第四, 南白月二聖 努肹夫得 怛怛朴朴

□ 논문 및 단행본

강진옥, 「『삼국유사』 <남백월이성>의 서술방식을 통해본 깨달음의 형상」, 『한국민속학』 43, 한국민속학회, 2006.

김문태, 『삼국유사의 시가와 서사문맥 연구』, 태학사, 1995.

김문태,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조의 시가고」, 『어문연구』 40-2, 어문연구학회, 2012.

김민수, 「남백월 이성 설화 연구」, 『단산학지』 2, 전단학회, 1996.

김승호, 「남백월이성의 창작 저변과 서사적 의의 -『현응록』 소재 담익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김헌선, 「구비전승의 지속과 변천」, 『민속학연구』 8, 국립민속박물관, 2001.

박미선, 「「남백월이성」 조에 보이는 탑상의 성격과 8세기 불교 신앙의 흐름」,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6.

이강옥, 「『삼국유사』의 세계관과 서술미학」, 『국문학연구』 5, 국문학회, 2001.

정운채, 「<남백월 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과 문학치료」, 『문학치료연구』 2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최귀묵, 「삼국유사 <남백월이성> 조에 나타난 일연의 문학비평-사와 게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2, 한국시가학회, 2002.

하은하,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을 통해 본 <신립 오성 이야기>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 의식」, 『국어교육』 100, 한국어교육학회,

1999.
황윤정, 「가치 문제의 서사적 형상화 방식 연구」, 『문화와 융합』 40-6,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황패강,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C. G.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1991.
Eric Neumann. *Depth Psychology and a New Ethic.* Boston: Shambhala, 1991.
Erna Van De Winckel. *De l'inconscient à Dieu: ascèse chrétienne et psychologie de C.G. Jung.* Paris: Aubier, 1959.
John A. Sanford. *Evil: The Shadow Side of Reality.* New York: Crossroad, 1981.

논문투고일 : 2019.12.09. / 심사완료일자 : 2020.01.09. / 게재확정일자 : 2020.01.21.

국문초록

『삼국유사(三國遺事)』 <남백월이성(南白月二聖)> 조에 나타난 '그림자 투사'의 문제 연구

조 홍 윤

본고에서는 『삼국유사』 탑상편, <남백월이성> 조의 서사가 지닌 의미를 심리적 맥락에서 구명해보고자 하였다. <남백월이성> 조는 관음의 화현에 의해 깨달음을 얻은 두 성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해탈에 관한 이야기로서, 백월산 남사의 창건에 얽힌 사찰연기설화의 성격을 지닌다. 이야기의 성격상 불교의 교리가 주요한 해석의 틀로 적용되어온 설화이나, 보다 보편적 차원의 해석을 통해 그 의의를 확장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이에 융 심리학의 '그림자 투사' 개념을 적용하여, 두 성인의 해탈 과정이 그림자 투사로 인한 문제의 발생과 그림자의 통합을 통한 성숙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암자에 찾아온 여인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한 것은 성적인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들의 내면상을 여인에게 투사한 것이었으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여인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함으로써 그녀에게 덧씌웠던 자기 내면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게 된 것이 둘을 해탈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 서사를 이해하였을 때, 보편적 인간 삶의 문제에 대한 이 서사의 함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적 삶 속에서 고통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변의 부정적 관계나 환경이, 실상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자기 내면의 부정적 일면을 비추고 있음을 이 서사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삼국유사,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 해탈, 그림자 투사

Abstract

A Research on the Problem of Shadow Projection in “Nambaegwol-iseong,” a Script of Samgugyusa

Cho, Hongyoun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narrative “Nambaegwol-iseong,” a Script of Samgugyusa, in a psychological context. The script is a story about two saints, Nohilbudeuk and Daldalbakbak, enlightened by the hierophany of Gwaneum.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story, the doctrine of Buddhism was applied as the main interpretation frame. However, the meaning of the story could be extended through a more general interpretation. Therefore, by applying the shadow projection, a concept from C. G. Jung’s psychology, it is found that the liberation process of the two saints reflects the problem of the shadow projection and the process of maturation through the shadow integration. Nohilbudeuk and Daldalbakbak rejected or feared the woman who came to the hermitage. It was the projection of their inner image, which was not free from sexual desire. Then, when they confirmed her reality directly or indirectly, they recognized and integrated their inner shadow veiled her. The recognition and integration led to liberation. When we understand this narrative in the same vein, we can discover the implications it has on the problem of universal human life. It points out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or environment around us that causes pain and conflict in our real life is actually reflecting the negative side of ourselves that we do not recognize.

Key-Words : Samgugyusa, Nambaegwol-iseong, Nohilbudeuk, Daldalbakbak, Liberation, Shadow Projection